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The APO in the News"

Name of publication: Chosunbiz (15 FEBRUARY 2016, ROK)

Page: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4/2016021401992.html

피플 ▾	[비즈시] "생산성 지수에 혁신·교육 수준 반영 해야"
	이인열 기자 ▾
기사	100자평(0)
↓ ↻ Ⓜ + 크게 - 작게	

입력 : 2016.02.15 03:05 | 수정 : 2016.02.15 10:19

- **홍순직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노동력 중심 생산성으로는 국가기업 경쟁력 못 높여
글로벌 생산성 지수 10월까지 만들겠다"



▲ 홍순직 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이 지난 4일 낮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본지와 인터뷰하며 "기업가 정신, 혁신 노력, 인재 육성 투자, 교육 수준 향상 같은 질적(質的) 변화를 측정하도록 생산성 지수를 개편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장현성 객원기자

"국내외 경제 상황이 심상찮은 요즘 생산성(productivity)의 개념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직(70) 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은 지난 4일 본지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 경제는 중국 및 글로벌 경기(景氣) 침체에다 저유가 같은 대외 악재 속에서 13대(大) 주력 품목의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위기 국면"이라며 "국가와 기업, 개인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성의 개념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가 강조하는 '생산성 바꾸기'의 핵심은 2개다. 노동력 중심의 생산성을 혁신과 창의성을 반영하는 '창조적 생산성'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고, 기존 제조업 중심의 생산성 평가를 서비스 산업까지 아우르도록 재정비하는 게 두 번째다.

"노동집약적 사회에 맞춘 지금의 생산성 개념을 갖고는 국가와 기업은 물론 개인까지 비전이나 전략 수립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봉제·합판 신발을 만들던 시절엔 노동 강도(強度)의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꾀했다면 지금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스마트폰, 자동차 등에서는 디자인·브랜드·기술 융합 등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만큼 생산성의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 한국에도 나오려면 기업가 정신, 혁신 노력, 인재 육성 투자, 교육 수준 향상 같은 질적(質的) 변화를 측정하도록 생산성 지수를 개편해야 합니다."

홍 회장은 "이를 위해 아시아생산성기구(APO)와 손잡고 KPC가 주도해 새로운 '글로벌 생산성 지수'(GPEx·Global Productivity Excellence Index)를 올 10월까지 만들어 내놓겠다"고 말했다. 도쿄에 있는 APO는 아시아 21개국 생산성 기구들의 연합체이다.



한국 경제의 새 돌파구로 주목받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提高)에 보탬이 되겠다는 입장도 그는 피력했다. GDP(국내총생산)에서 서비스업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가운데 29위다. 서비스 산업 1인당 부가가치는 미국의 3분의 1,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낙후돼 있다.

홍 회장은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며 "서비스 산업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생산성대상(大賞)'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두 부분으로 나눠 시상(施賞)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수 서비스 산업 사례를 적극 발굴해 산업계에 전파할 방침이다. 특히 조선일보와 공동 주최하는 NCSI(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대학, 병원, 호텔, 백화점, 면세점, 여행사 같은 서비스 관련 산업의 조사 대상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NCSI 조사는 기관별 경쟁을 촉발해 사립대학과 백화점의 경우 최초 조사 시점인 1998년 대비 지난해 절대 점수가 각각 37%, 17% 수직 상승했다.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등 정통 경제관료로 일했던 홍 회장은 삼성자동차 전무, 삼성SDI 부사장을 거쳐 전주비전대 총장 등을 지냈으며 2014년 12월부터 KPC 회장을 맡고 있다.

1957년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KPC는 1986년 정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개편된 지식 서비스 기관인데 교육·컨설팅·NCSI 같은 지수(指數) 조사 발표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